

#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 전략적 함의\*

이동률\*\*

- I. 서론
- II. 책임대국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II. 책임대국론의 등장과 의미
- IV. 책임대국의 외교전략: 다극화 전략
- V. 결론: 책임대국론의 함의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양극체제의 해체에 따른 국제질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국의 종합국력의 획기적 신장에 대한 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책임대국론이 등장한 정황과 그 목표를 상정하면 중국의 인식의 기반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중국의 책임대국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 즉 구체적인 외교전략의 내용에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또는 심지어 구성주의적 사유와 접근방식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책임대국론이라는 수사를 동원해서 중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인지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견제와 국내 체제유지라는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책임대국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 현실주의적 목표 실현의 욕구와 자유주의적 수단이 요구하는 제약사이의 긴항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제어: 책임대국, 다극화전략, 다자주의, 중국외교

\* 이 논문은 2004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 1. 서론

중국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자국의 새로운 국제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른바 “책임감 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에 대한 논의이다. ‘책임대국론’은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순히 학자들의 학문적 소신이나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책임대국론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국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국제적 책임 이행”이라는 이전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사(修辭)들이 중국의 당과 정부 문건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방대한 2002년 16대 보고의 핵심은 “3개 대표론의 관철”과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역설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의 대국으로의 부상은 이미 중국 내에서는 당위의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결국 책임대국론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미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 등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유사 화두가 국제사회의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국제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의 위협이고 불안정을 의미하는가?”가 핵심 논제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현실주의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이 논의를 주도해 가는 양상이었다. 이제 책임대국론의 등장으로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중국은 어떤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대국’ 보다는 ‘책임’이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바 책임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원론적 차원의 의문에서부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는 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책임대국론은 수사에 불

과하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이면에 내재된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집약되고 있다. 결국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책임대국론은 그 자체가 목표인지 아니면 전략인지, 전략이라면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책임대국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첫째, 책임대국론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는지, 둘째, 중국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책임대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셋째, 책임대국을 어떤 외교 전략으로 실현시키려 하는지에 대해 중국 내의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요컨대 책임대국에 대한 중국 내의 담론과 책임대국론의 등장 배경, 그리고 실천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외교의 경우 실체와 수사사이의 일정한 괴리가 있어 내재된 의도를 규명해내는 작업이 용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sup>1)</sup> 따라서 의도에 대한 착시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책임대국론의 실체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책임대국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제정치적 관점과 시각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즉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책임대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추진하는 외교전략이 기본적으로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 중 어느 관점에 기반을 두고 논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내재된 의도의 기저에 접근하고자 한다.

---

1) 중국외교에서의 본질(essential)과 수사(rhetorical)의 차이에 대해서는 Zhao(1993) 참조.

## II. 책임대국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이미 90년대 초부터 중국의 부상을 둘러싸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각기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서 상이한 해석과 대응책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논의는 각 이론마다 특유의 분석틀과 논리를 근거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줌으로써 독자들의 관점과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달리 지역적 특수성이 강한 중국의 경우 주어진 고정된 이론 틀에 고착되어 기계적 시나리오를 생산해냄으로써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어느 특정 이론 틀을 미리 상정하지 않은 채 중국의 주장과 논의 자체 그대로를 분석하여 이들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기존의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연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정치이론의 틀과 관점을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 글은 책임대국에 대한 중국자체의 주장과 논의가 주로 어떠한 국제정치적 관점과 시각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중국의 의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도입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연구 분석에 있어서 여전히 서구이론의 직접적 도입과 활용보다는 중국적 특색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때문에 중국학자들의 이론적 성향이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국제정세, 중국외교, 그리고 책임대국론을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이

---

2) 중국특색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논의는 Wang(1995), 倪世雄·許嘉(1997), 賈中筠(1998) 참조.

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성향을 담고 있는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세가지 이론이 이론적 특성상 본질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20여년의 개혁 개방과정과 국제체제의 편입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힘(power)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 속성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된 힘에 비례하여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외교 목표는 중국의 종합국력의 증대에 있으며 증대된 힘에 비례하여 국가 이익을 보다 확대 규정하고, 확대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의 증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과거 19세기 150년간의 치욕의 역사를 상정하며 저항적 민족주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세계화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과 영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게 된다.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책임대국론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보다는 대국으로의 지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국제체제의 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비용, 특히 주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심지어 이 둘 가운데는 중국의 부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함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온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그리고 점진적인 정치개혁의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시각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국제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러한 체제로부터 요구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체제에 지속적인

로 참여하고 체제로부터의 제약을 감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Martin 1993). 따라서 중국의 자유주의자들도 국제체제 참여에 따른 현실적 이익이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체제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체제가 요구하는 규범의 준수는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일정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때문에 책임대국론에 대해서도 비록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에 따른 기존 체제로부터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일정정도 수용해야 함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의 국제체제의 참여를 통한 대국으로의 부상과정에서 제도와 규범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자의적이고 공세적 행위는 자제되고 궁극에는 체제 수용적인 현상유지 성향의 국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이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중국을 기존의 국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개입(engagement)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의 기대는 결국 현 공산당 일당체제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여전히 소위 화평연변(和平演變)에 대한 경계심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일반 자유주의론자들과는 다른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 기존의 국제체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학자들 중 다수가 기존 체제와 질서의 전면적 수용보다는 기존 국제체제의 참여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王杰 2002; 阮宗澤. 2004; 門洪華 2003).

셋째, 구성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와 경제적 세계화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제도와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행위자 자체의 변화

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제도와 기구의 참여에 따른 비용과 이득에 대한 계산에 의해 행동할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제도와 기구에의 반복적인 참여과정을 통해 행위체인 정치지도자 또는 국가가 그의 정체성(identities),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s), 규범(norms), 그리고 이익구조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이처럼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국제체제와 국가와의 상호관계를 사회화과정(socialization)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즉 국제체제와 국가와의 상호과정에서 국가는 국제체제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국제체제의 규범과 원칙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성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의 국가이익이나 세계관은 가변적이며, 외부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의하여 재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의 구성주의론자들 역시 국제기구의 참여과정을 통해 중국 국내의 전략문화와 규범,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등의 기본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대국론을 지난 25여 년간의 개혁 개방과 국제기구의 참여를 통한 사회화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외교 인식의 변화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는 현재는 비록 전략적 의도를 갖고 책임대국론이 등장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제체제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체제가 추구하는 규범, 가치 및 원칙을 학습(learning)하고 그에 맞추어 자국의 국가이익과 세계관을 바꾸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책임대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논의 될 수 있다.<sup>3)</sup>

---

3) 중국에서는 구성주의이론을 통해 중국이 평화적으로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즉 국제사회와 이론계의 일반적 기대성 논의와는 달리 중국이 변화의 객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의 시각에서

중국의 책임대국론을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의 일환이라는 설정 하에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을 통해 접근할 경우 이와 같은 서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을 근거로 수사적 성향이 강한 책임대국론을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는 서구와 중국은 책임대국론에서 책임의 개념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한석희 2004).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을 통해 책임대국론을 해석하기보다는 책임대국론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논의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제정치적 시각을 갖고 전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분석에 객관성을 제고 시키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대국론의 등장과정, 의미, 그리고 실천 외교전략에 대한 내용 분석과 더불어 이들 내용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시각이 주요하게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병행해서 살펴볼 것이다.

### III. 책임대국론의 등장과 의미

#### 1. 책임대국론의 등장배경

중국에서 책임대국론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일련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우선 냉전이 끝난 직후 90년대 초부터 중

---

구성주의 이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미국의 패권국으로 부상을 구성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 역시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封永平 2004). 그리고 중국적 가치관과 규범을 주변 국가들에게 확산시키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있다(陳凌 2004; 郭樹勇 2004).

국 당과 정부에서 서서히 “대국”, “강국”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전까지 중국의 공식문건에서 대국은 패권국으로 인식되면서 반대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서만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냉전종식과 양극체제 해체라는 국제사회의 지각변동에 직면하여 중국에서 90년대 초 “국제정세의 다극화”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다극의 한 극임을 암시하기 시작했다(張登及 2004, 77). 이러한 암묵적 대국외식의 표출은 급기야 1997년 15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더불어 이른바 “동방대국”이라는 화두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중국학계에서 대국관계, 대국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up>4)</sup>

90년대 중반 대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와 더불어 대국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화두도 등장하였다. 탕자췌(唐家璇) 전 외교부장은 1989년 이후 장쩌민(江澤民) 집권 시기 13년의 중국의교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총괄하는 글에서 1997년 15차 당대회 이후의 외교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唐家璇 2002c). 아울러 탕자췌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사례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남아시아 핵실험위기, 1999년 코소보전쟁, 그리고 2001년 9.11사건을 들고 있다(唐家璇 2002a).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사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유보하고 또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대해 금융지원

---

4) 중국내 대국외교에 관한 연구로는 王逸舟(1999), 葉自成(2000)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재철(2005) 등이 있다. 대만학자 장덩지(張登及)가 2000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31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은 대국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자는 6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 중국이 아직은 능력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응답한 학자는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또는 타국의 견제를 의식해서 중국은 대국이 아니라고 응답했다(張登及 2003, 194-195).

을 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근거로 했을 때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199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중국은 9.11사건 등 주요한 국제 사안에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특히 2001년 WTO 가입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국제체제 등장을 공식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5)</sup>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책임대국론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은 국제체제와 정세를 묘사하는 주요 화법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반패권, 강권정치, 주권수호, 불가침, 내정간섭 등의 용어를 대신하여 세계화, 상호의존, 공동안보, 공동번영 등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주요 화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夏立주 2003). 예를 들어 16차 당대회 보고 국제부분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가 “공동”이었을 정도로 공동안보, 공동발전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세계화 시대 국가간 안보 및 발전구조에서의 상호작용 및 연계성을 인정하고 또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葉自成 2003, 62).

화법의 변화에만 주목할 경우 중국내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현실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류 담론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적 차원의 변화라고만 치부해버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지난 25여년의 개방과 세계화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인식의 변화를 일정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성주의의 사회화과정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친야칭(秦亞青 2003)은 중

---

5) 일반적으로 2001년은 9.11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해로 기억되지만 중국에서는 “세계화의 해”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유치, 국제인권규약 비준, 그리고 SCO 창설 등을 이루어냈다.

국이 지난 사반세기에 걸친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국은 국가 정체성, 전략문화 그리고 안보이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중국이 점진적으로 혁명성국가에서 현상유지국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학습의 과정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행이 더욱 지체되거나 심지어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만, 티베트문제 등 영토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정서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화법에서는 일부 자유주의로의 전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책임대국론이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사유체제의 기저에는 현실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90년대 대국, 그리고 책임대국론의 등장은 일차적으로는 국력의 증강에 대한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종합국력의 신장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의 변화에 대한 내적 요구가 표출된 것이 책임대국론인 만큼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수단은 힘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냉전구조의 해체이후 국제질서를 다극체제로 인식하고 다극체제의 일환으로 중국의 지위를 상정하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국제사회가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작동한다는 현실주의의 인식이 저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국민 통합과 지지 획득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던 “150년간의 치욕의 역사”에 대한 회상을 통한 일종의 피해자 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은 자제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

6) 위엔정칭(袁正清 2004, 13) 역시 중국이 국제기구의 참여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증대하여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국가 사회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가치체계의 교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대국의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당의 공식문건에 중화민족의 부흥이 등장한 것은 1997년 15차 당대회가 처음이다. 이후 장쩌민은 같은 해 하버드대학 강연, 그리고 2001년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서도 주된 화두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21세기 첫 당 대회였던 2002년 11월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은 이례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보고의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면서 무려 9차례나 반복하였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중화민족의 강조는 사실상 국가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체하지 않는 가상의 중화민족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국가 통합과 단결, 그리고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결국 책임대국론은 탈냉전기의 국제체제의 전환기라는 “호기”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종합국력에 부합하는 국제적 지위를 모색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책임대국의 위상과 역할

책임대국론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이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적 위상 설정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는 1981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세계정치에서 중국의 지위를 잘못 판단하는 사람은 정확한 국제전략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鄧小平 1983, 376) 라는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위협론이 대세였던 시기에 제럴드 시겔(Segal 1999)이 중국은 중등국가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하자 중국학계의 격렬한 반론이 일어난 역설적 상황도 역시 중국인들이 자국의 지위 설정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李俊昌 1999). 특히 중국은 냉전의 종식과 양극체제의 와해를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Deng 2005).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민감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국력의 우열을 바탕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위계체제(hierarchical system)로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건국이후 국내외 정세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사회주의 중국, 제3세계 국가, 개도국, 그리고 책임대국으로 자국의 위상을 변화시켜왔으며 그에 부합하는 외교 전략을 전개해왔다. 예컨대 5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위치에서 대소일변도 외교를, 60~7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의 지도국을 자임하면서 반소반미 패권주의를 기치로 내걸며 제3세계외교를 전개했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대화 외교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대국은 실제 어떤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학자는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은 그 국가의 종합국력, 국제적 목표,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門洪華 2004). 책임대국 역시 이러한 기준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중국 학계의 다수가 책임대국론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지역대국”으로 설정하고 있다(肖歡容 2003; 門洪華 2004; 唐世平 2003). 그러면서 현재의 중국의 위상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중국은 현재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지역대국에서 세계적 대국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합국력이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역대국의 위치에 있지만 목표는 세계적 대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그런데 현실주의 이론과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대국의 등장은 기존의 패권국과의 충돌 심지어는 전쟁을 상정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중국의 부상은 견제되거나 또는 저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세계적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충돌이나 전쟁을 어떻게 회피하고 또 회피될 수 있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갖게 하는가가 중국의 과제이며, 책임대국론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갈등이나 충돌 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국으로의 부상을 실현하고 또 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키기 위해서 책임대국 그리고 유사한 맥락에서 화평굴기, 화평발전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지역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행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책임대국의 출발은 아시아지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책임대국의 위상 확보는 이미지 형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다.<sup>7)</sup>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제발전, 체제유지, 대만과의 통일, 변경지역의 안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안정적 외교 안보관계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 내 일부 현실주의 성향의 학자군 가운데는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唐世平 2003). 이들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책임대국으로의 안정적 부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팽창을 추구하기보다는 방어적 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9·11 사건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환경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대

---

7) 최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외교부장은 중국외교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문건에서 2004년 중국무역총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6%에 이르고 1996년 이래 중국의 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여율이 44%에 달한다며 중국과 아시아지역과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한바 있다(和平, 發展, 合作—李肇星外長談話時期中國外交的演進 2005/08/22) <http://www.fmprc.gov.cn/chn/wjdt/zjih/t208030.htm> (검색일: 2005.12.20).

국으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략적 호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sup>8)</sup>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확보한 책임대국의 위상이 세계적 대국으로 도약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국제기구에서의 위상과 역할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참여국은 그 국제기구에서의 행태와 지향에 따라서 주도국과 비주도국으로 대별되고, 다시 주도국은 일반주도국과 패권국, 그리고 비주도국은 무임승차국, 소극적 참여국, 적극적 참여국으로 세분한다(門洪花 2005, 245-247).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1971년 유엔 회원국 가입을 기점으로 국제체제의 참여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80년대까지는 주로 경제관련 국제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무임승차국 또는 소극적 참여국으로 그리고 90년대 전반기에는 정치, 안보 분야 등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영역을 다양화하면서 적극적 참여국으로 변모해 왔지만 여전히 권리는 최대화하고 책임과 의무는 최소화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신안보관, 책임대국론, 화평굴기’ 등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점차 주도국으로서 전환을 모색하려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주도국을 비주도국과 구분하는 준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도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기구와 제

---

8) 21세기 초 20여년이 중국에게는 전략적 호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미 장쩌민의 16대 보고, 탕자쥬의 기자회견, 그리고 학계의 상당수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이 발전과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적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단순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有所作爲) 시기가 아니라 큰일을 해야 하는(大有作爲)시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夏立平 2004, 52-56).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9.11 이후 미국이 이라크 전쟁 등 중동지역에 매몰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로 중국은 아시아에서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도의 창설과 발전에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사실상 국제사회의 진입을 거의 완성하였으며 이후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국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閻學通, 2004). 아울러 중국은 국제기구의 후발참여국으로서 기존의 국제제도와 규범은 사실상 중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현 국제체제의 수혜자임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범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門洪華 2003). 16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을 적시한 것도 중국의 국제제도에 대한 이러한 의지를 포괄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제도의 형성,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도국으로의 전환의지라 할 수 있다.<sup>9)</sup> 그런데 국제제도에 대한 위상과 역할의 정립에서도 중국은 점진성과 단계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 세계적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참여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지역 국제기구와 다자협약에서는 주도적인 위치를 지향해가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ASEAN+3, 보아포럼, 그리고 북핵 6자회담 등에서 과거와는 달리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창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책임대국론 제기와 더불어 국제기구와 제도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 되었으며, 일부 지역 국제제도에서는 단순한 참여

---

9)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루안종쩌(阮宗澤 2005, 26)는 “중국의 신외교가 사실상 서방 국가들이 줄곧 장악해왔던 국제문제에서의 발언 패권을 타파했다”고 하면서 국제규칙과 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가 아니라 주도국의 위치를 지향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제도의 참여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규범의 준수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해가고 있다. 국제제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분명 중국외교행태의 중요한 변화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국제제도의 참여는 자유주의적 인식과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소위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창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에 의한 자국의 변화 못지 않게 제도자체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도와 규범의 준수는 전략적 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성주의 연구자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중국적 규범의 확산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陳凌 2004; 郭樹勇 2004). 즉 중국은 조화(和諧)와 화이부동(和而不同) 전통을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내의 공동발전, 공동안보의 규범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 IV. 책임대국의 외교 전략: 다극화전략

##### 1. 동반자 외교

중국은 ‘지역 및 세계의 공동안보와 공동발전의 기여’라는 전형적인 구호성 수사를 동원하여 대국의 책임을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책임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다.<sup>10)</sup> 중국은 탈냉전시대의 이상적인 국제체제로 다극화를 지향하고

---

10) 다극화 전략은 중국의 새로운 4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16차 당대회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있으며, 다극화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중국은 강대국간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화를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의 단극질서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안보를 포괄하는 소위 ‘종합안보’를 보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다극화전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탈냉전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국제사회에서의 부상이 없다면 다극화는 실현될 수 없다. 반대로 국제사회에 다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서의 부상 또한 지난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다극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첫째는 중국 스스로가 다극의 한극으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극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을 비롯한 다극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요 대국들과 안정적 공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90년대 중반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강국들과 다양한 형식의 동반자(伙伴)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제질

---

강조되고 있다. 15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극화를 하나의 국제정세의 추세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이상적인 국제체제의 모델로 강조하고 있었다면, 16차 보고에서는 “세계 다극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언급함으로써 외교목표로서 부각되고 있다. 16차 보고의 전문은 江澤民同志在黨的十六大上所作報告全文(2002/11/17) 참조.

11) 대국으로서 담당해야 할 ‘특수한 국제적 책임’은 특히 장쩌민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대화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를 견제하는 ‘국제 다극화 실현’의 책임으로 집약되고 있다. 中俄聯合聲明(1999/12/11); 中華人民共和國和俄羅斯聯邦關於世界多極化和建立新秩序的聯合聲明(1997/04/23).

서의 다극화 강화와 전방위 외교라는 목표를 추구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동반자관계가 냉전시기의 동맹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탈냉전기의 이상적 양자간 협력관계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5개 국가와의 양자간 동맹관계를 통해 패권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암묵적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다극체제의 구체적인 형태로 “일초다강(一超多強)”론을 제시하고 ‘일초(一超)’인 미국의 “패권적 행위”를 견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다강(多強)’들 특히 러시아, 프랑스, EU, 그리고 심지어는 아세안과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는 1996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協作伙伴關係)를 설정하고 미일신안보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97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다극화에 대한 공조를 확인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러간 전략적 공조관계는 2001년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리고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은 취임 후 러시아를 첫 해외 방문국으로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신정부 역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2005년 2월 미일안보협의회(2+2)에서 대만문제를 논의하는 등 미일간의 동맹체제강화와 대중견제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8월에 중국 동해와 산둥반도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러의 주도하에 SCO 회원국들이 9.11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일정마련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일동맹에 대한 양국간의 공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러의 공동성명에는 항상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유엔중심의 다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독단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공유를 확인

시켜주고 있다.<sup>12)</sup>

중국은 유럽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예외 다극화에 대한 강조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는 1997년에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를 수립하여 세계체제의 다극화를 양자관계의 주요한 공동의 목표로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수교 40주년이 되는 2004년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全面戰略伙伴關係)를 설정하고 다극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협력의지를 과시했다.<sup>13)</sup> 아울러 2005년에는 11월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에 이어, 12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다시 유럽 3개국을 방문하였으며 두라오 바로소 EU 집행위원장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각각 7월 및 9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2003년 프랑스, 2005년 영국에서 각각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대화상대국의 자격이기는 하지만 중국 국가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것도 역시 유럽외교를 통한 다극화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대미 실리 외교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대상은 오히려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다극화전략에 있어 극복의 대상인 동

---

12) 2005년 중러 정상간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다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中俄關於21世紀國際秩序의聯合聲明(2005/07/02) <http://www.fmprc.gov.cn/chn/wjb/zzjg/dozys/gjlb/1706/1707/t201988.htm>(검색일: 2006.1.12).

13) 중국과 프랑스의 2004년 공동성명의 내용은 胡錦濤與希拉克簽署中法聯合聲明(2004/01/28) <http://www.fmprc.gov.cn/chn/wjb/zzjg/xos/gjlb/1842/1843/default.htm>(검색일: 2006.1.12).

시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다극화는 미국의 단극질서를 저지해야 가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극으로의 부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대상이며 특히 중국의 지속발전의 동력원인 원유 수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유수입국으로 수요의 2/3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다(Harris 2005, 483).

여기에 중국의 다극화 전략의 한계와 딜레마가 있다. 중국이 책임대국으로 부상하고 다극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단극질서와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이 다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강대국과의 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다극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딜레마는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노선, 특히 대미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노정시키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이념지향성이 강한 그룹에서는 미국의 신간섭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미관계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范躍江 2000). 그럼에도 현재 중국정부의 대세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재한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개혁 개방을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기술관료 지도부들의 기본적 성향인 것이다.

따라서 대미외교에서도 상당히 실사구시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다극화를 위한 다극화를 추진하다가 미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킴으로써 다극화의 실질적 목적인 책임대국으로의 부상과 종합안보의 확보를 위태롭게 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려는 현실적이며 신중한 입장인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이른바 “소강사회의 전면

적 실현”이라는 국내 발전과 발전을 통한 체제안정의 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인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중국은 다극화 추진이 결코 반미 전선의 형성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편으로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결코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葉自成 2002).<sup>15)</sup>

이러한 중국의 대미 실리외교의 실상은 9.11테러 사건이후 미국주도의 반테러 국제연대에 참여한 중국의 행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왕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대테러 공조체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직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던 것이다.<sup>16)</sup> 실제로 대테러 공

14)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현실적 국력의 격차를 인지하고 있다. 1998년의 자료를 근거로 한 미국과 중국의 종합국력을 평가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미양국 종합국력의 연평균 성장율을 각각 7%와 3%로 상정할 경우 양국의 격차는 15년이후에야 비로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綜合國力課題組 2000).

15) 샴보(Shambaugh)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중미 회담시 중국관리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hambaugh 2002, 249). 아울러 2004년 중국외교관리와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Shambaugh 2004/05, 91). 필자가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행한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즉 중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 초강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다극화 전략과 대미관계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2003.01.10의 인터뷰).

16) 이는 탕자선 당시 외교부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반테러리즘의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언행이 평화를 지향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현저하게 제고되었다.”고 대테러 국제적 연대 참여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唐家璇 2002b).

조이후 중미관계는 비록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 요소, 예컨대 대만문제, 무역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양국이 수교 후 가장 우호적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오고 있으며 과거 어느 시기보다 빈번한 양국 고위층간의 대화와 접촉을 지속시켜가고 있다.<sup>17)</sup> 중국으로서는 미국중심의 반중국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비록 비교적 엄격한 세력균형이 확보되는 다극화는 아니더라도 미국우위의 다극체제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배경에는 역시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이다.

### 3. 다자주의 외교

중국의 책임대국 지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외교 행태는 다자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 보다는 양자주의를 고집해왔다. 주된 이유는 기존의 다자기구 대부분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체제로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전을 통해 최초의 유엔 다자안보의 대상이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거의 모든 정부간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구의 수가 미국의 80%에 이르고 체결한 국제조약의 수도 220개(200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두 방

---

17) 파월 전 국무장관과 켈리차관보는 공개적으로 미중관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이후 31년의 역사중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한바 있다.

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9.11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유엔창설 60주년 정상회의에서 “유엔은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으로서 전 세계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바 있다.<sup>18)</sup>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유엔 창설 55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제안으로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국제기구의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유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있다. 첫째,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유엔이야말로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다자기구이다. 즉 유엔, 특히 안보리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는 바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증대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이다. 둘째, 중국은 유엔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다자주의 제도로 부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다극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 결의를 통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지역 다자기구에서 중국은 단순 참여이상의 주도국의 위치를 지향해가고 있다. APEC, ASEAN+3, ASEAN+1 등 경제관련 다자기구에서 중국은 시장의 힘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협력망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의

---

18) 후진타오주석의 유엔연설내용은 胡錦濤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的講話(2005/09/16) <http://www.fmprc.gov.cn/chn/wjb/zsjg/gjs/gjzzyhy/1115/1122/t212365.htm> (검색일: 2006.1.13)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을 위한 기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인구 17억에 GDP 2조 달러, 교역액 1조 2천억 달러의, EU와 NAFTA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협력체의 출범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선발 6개국과 먼저 교역 자유화를 완료하고, 2015년에는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과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관련 다자주의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1994년 아시아 최초의 다자안보협의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참여하여 의제를 제시하는 등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공동체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SCO 창설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안보 기제로 출발한 SCO를 원자바오 총리의 자유무역지대 건립 제안으로 경제협력영역으로 까지 확대시켜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3와 SCO를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다자주의 모델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Fu Ying 2003). 결국 중국의 주변 아시아지역에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망이 건설되는 양상이 되고 있으며 적어도 지역 다자주의 차원에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 참여자가 아니며, 기제와 규범의 제안자이자 건설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있다(阮宗澤 2004, 32-33).

중국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다자기구는 중국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다자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지역 다자주의 참여의 전략적 의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 다극화 전략의 출발점이자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ASEAN을 다극체제의 한 극으로 묘사하며 다소 과장되게 부각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19)</sup> 즉 중국은 역내 다자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주변, 특히 동아시아에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미국중심의 양자간 동맹체제를 견제, 또는 대체함으로써 역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다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sup>20)</sup> 둘째, 지역 다자기구에서의 지위를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지역내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다자기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 지역 강국으로서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여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 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내재하고 있다.<sup>21)</sup>

실제 중국은 동북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주도하고,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행동선언문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고,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등과 정부간 안보대화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54년간 스스로 금기시했던 양자간 군사훈련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 가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 국가들로부터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려와 견제를 상당정도 완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sup>22)</sup>

결론적으로 책임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 전략은 기본적

19) 중국의 다수 논문에서 냉전종식이후 다극질서의 일원으로 미, 러, 일, 중 4강외에 ASEAN을 추가하여 “四國五方”이라고 일컫고 있다(鄭寅 1994; 陳啓懋 1995; 時永明 1997).

20) 탕자셴 전 외교부장이 16대 개최 전에 당 중앙선전부 등에서 공동 개최한 “13기 4중 전 회이후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성과 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중국의 지역 다자기구의 참여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및 영향력 제고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唐家璇 2002c).

21) 실제로 중국지도부와 학자들은 이른바 “아태지역을 근거로 세계로 나아간다(立足亞太, 面向世界)”를 선린외교의 주요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朱聽昌 2001, 12-18; 沈偉烈 2001, 71-75) 江澤民 총서기의 APEC 정상회의상의 발언 『人民日報』1994.11.11.

22) 최근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성과와 그에 따른 이미지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ambaugh(2004/05) 참조.

으로 다극화와 중국 스스로 다극의 한 극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현실주의적 시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극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행태, 즉 동반자외교, 미국에 대한 실리외교, 그리고 다자주의에의 적극적 참여 등은 오히려 자유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모색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결론: 책임대국론의 함의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양극체제의 해체에 따른 국제질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국의 종합국력의 획기적 신장에 대한 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책임대국론이 등장한 정황과 그 목표를 상정하면 중국의 인식의 기반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사회를 기본적으로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질서가 형성되는 체계로 이해하는 국제질서관, 그리고 자국의 국력의 신장을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정체성의 변화의 근거로 상정하는 국가주의적 속성, 그리고 국가의 외교목표를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권력과 영향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성은 모두 현실주의 사고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도부는 여전히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또 상대 역시 현실주의 시각에서 중국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외교전략을 구상,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패권경쟁과 그에 따른 국제정세의 불안정을 우려케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중국의 책임대국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 즉 구체적인 외교전략의 내용에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또는 심지어 구성

주의적 사유와 접근방식이 발견되고 있다.<sup>23)</sup> 즉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외교 전략은 신중하고 실사구시적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가능한 한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국제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국을 지향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국제정세관과 사유방식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주류 화법의 변화를 통해 기존 질서와 체제의 규범에 점진적으로 수렴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지역 다자주의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의제와 규범을 제시하고, 제도를 창출해내면서 기존 체제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병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 체제 내에서의 교류와 협상이라는 자유주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일부 학자들은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책임대국을 향한 중국의 목표와 수단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괴리는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안고 있는 제약의 결과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책임대국론이라는 수사를 동원해서 중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인지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제약요인은 미국의 견제와 국내 체제유지의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암묵적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대국으로의 부상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기존 체제에의 전략적 적응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 후진타오 정부는 화려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개혁후기의 다양한 문제들로 거버넌스 위기에

---

23) 중국학자는 중국 부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안보딜레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와 레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그리고 과학발전관 및 화이부동의 이념의 부각을 통한 구성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葉江 2005).

직면해 있다. 후진타오 정부가 친민정책, 과학발전관, 그리고 당의 집정 능력 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급변하는 정치사회구조속에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체제 유지에 대한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Wang 2005, 19-49). 개혁후기의 후유증을 치료하며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국제질서와 체제의 수혜자의 위치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미래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불가피하게 자유주의 방식이 제공하는 혜택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즉 자의적으로 선택한 수단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요구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융통성 있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책임대국을 지향해가는 과정에 현실주의적 목표 실현의 욕구와 자유주의적 수단이 요구하는 제약사이의 길항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줄다리기는 목표와 수단 관계처럼 주종의 관계 이상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5여년의 진행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비록 상당한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수단 행위 의 반복이 완만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지도부의 현실주의적 목표의식에서도 점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국 내의 고민 또한 적지 않음을 중국학자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즉 그는 중국이 비록 기존의 국제체제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에의 적응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문명은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화를 중국화시킨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문명의 변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唐世平 2003, 219-223). 이 주장은 현재 중국이 기존 체제 내에서의 부상을 시도하지만 일단 부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기존 국제체제에의 중국의 '동화'에 대한 우려와 고민 또한 적지 않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철. 2005.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11(3).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1).
- 郭樹勇. 2004. “試論建構主義及其在中國的前途.”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 唐家璇. 2002a. “國際地位空前提高.” 『瞭望』 44期.
- 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鄧小平. 1983. 發展中美關係的原則立場(1981年1月4日)『鄧小平文選』 第二卷.
- 門洪花. 2005. 『构建中國大戰略的框架國家實力, 戰略觀念與國際制度』.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 2004. “中國和平崛起的國際戰略框架.” 門洪花 主編. 2004 中國: 大國崛起. 浙江人民出版社.
- 龐中英. 2004. “在變化的世界上追求中國的地位.” 『世界經濟與政治』 1期.
- 范躍江. 2000. “新干涉主義與中國安全.” 『太平洋學報』 第3期.
- 封永平. 2004. “從建構主義視角解讀美國和平崛起.” 『學術探索』 第9期.
- 肖歡容. 2003.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戰略研究』 1期.
- 時永明. 1997. “冷戰後東盟地位的增強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第1期.
- 沈偉烈. 2001. “中國未來的地緣戰略之思考.”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 王逸舟. 1999. “面向21世紀的中國外交: 三種需求的尋救及其平衡.” 『戰略與管理』 第6期.
- 葉江. 2005. “試析大國崛起與‘安全困境’的關係.” 『世界經濟與政治』 第2期.
- 葉自成. 2003. “從獨立自主到共同發展-從十六大看中國外交政策的與時俱進.” 『國際政治研究』 1期.
- . 2002. “中國外交對美發力- 從中美峰會看‘9.11’後中國對外戰略的調整.” 『南方週末』(10월 31일).
- . 2000.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 阮宗澤. 2005. “實現中國外交‘話語權’.” 『了望』 32期.
- . 2004. “中國和平崛起發展道路的理論探討.” 『國際問題研究』 4期.
- 袁正清. 2004. “建構主義與外交政策分析.”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 倪世雄·許嘉. 1997.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歷史回顧與思考.” 『歐洲』 第6期.
- 李俊昌. 1999. “中國不容貶損: 駁所謂“中國无足輕重論.” 『了望』 43期.
- 資中筠主編. 1998. 『國際政治理論探索在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張登及. 2004. “中國大國外交的類型學分析.” 『世界經濟與政治』 8期.
- . 2003. 『建構中國』. 臺北: 揚智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 鄭寅. 1994. “亞太地區五方多角關係.” 『現代國際關係』 第10期.
- 朱聽昌. 2001. “論中國睦鄰政策的理論與實踐.” 『國際觀察』 第2期.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綜合國力課題組. 2000. “世界主要國家綜合國力評估,” 『國際資料信息』 第7期.
- 陳啓懋. 1995. “走向多極格局的世界轉型期形勢.” 『太平洋學報』 第2期.
- 秦亞青. 2003. “國家身分,戰略文化和安全利益: 關於中國和國際社會關係的三個假說.” 『世界經濟與政治』 1期.
- 陳凌. 2004. “以建構主義視角看待中國的和平崛起.” 『學術探索』 第9期.
- 夏立平. 2003. “論中國實現和平崛起的國際戰略新理念.” 『國際問題研究』 6期.
- . 2004. “論中國和平崛起的重要戰略機遇期.”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1期.
- 『人民日報』 1994.11.11.
- 江澤民同志在黨的十六大上所作報告全文(2002/11/17).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6/20021117/868436.html>(검색일: 2005.11.20).
- 江澤民主席與普京總統簽署中俄聯合聲明全文(2002/12/02)  
<http://www.fmprc.gov.cn/chn/38583.html>.
- 唐家璇. 2002b. “2002年中國外交機遇大於挑戰.”  
<http://www.peopledaily.com.cn/GB/junshi/60/20011231/639496.html>(검색일 2002/01/06).
- . 2002c. “中國跨世紀外交的光輝歷程” <http://www.fmprc.gov.cn/chn/36007.html> (검색일: 2002/11/23).
- 中俄聯合聲明(1999/12/11), <http://www.fmprc.gov.cn/chn/2804.html>.
- 中華人民共和國和俄羅斯聯邦關於世界多極化和建立新秩序的聯合聲明(1997/04/23), <http://www.fmprc.gov.cn/chn/3187.html>.
- 中俄關於21世紀國際秩序的聯合聲明(2005/07/02)<http://www.fmprc.gov.cn/chn/wjlb/zsjg/dozys/gjlb>(검색일: 2006.1.12)
- 胡錦濤與希拉克簽署中法聯合聲明(2004/01/28)  
<http://www.fmprc.gov.cn/chn/wjlb/zsjg/xos/gjlb/1842/1843/default.htm>  
(검색일: 2006.1.12).
- 胡錦濤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的講話(2005/09/16)

- <http://www.fmprc.gov.cn/chn/wjb/zjg/gjs/gjzzyhy/1115/1122/t212365.htm> (검색일: 2006.1.13).
- 和平, 發展, 合作: 李肇星外長談新時期中國外交的旗幟(2005/08/22).  
<http://www.fmprc.gov.cn/chn/wjdt/zyjh/t208030.htm> (검색일: 2005.12.20).
- Deng Yong. 2005. "Better Than Power: 'International Status' in Chinese Foreign Policy." Deng Yong & Fei-Ling Wang. *China Rising: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Johnston, Alastair Iain. 1996. "Learning Versus Adaptation: Explaining Change in China's Arms Control Policy in the 1980s and 1990s." *The China Journal* 35.
- Harris, Stuart. 2005. "China's regional policies: how much hegemon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4).
- Fu Ying. 2003. "China and Asia in the New Period." *Foreign Affairs Journal*, 69.
- Martin, Lisa L. 1993. "the Rational Choice State of Multilateralism,"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2004/05.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9(3).
- \_\_\_\_\_. 2002. "Sino-American Relations since September 11: Can the New Stability Last?" *Current History*, 101(656).
- Segal, Gerald. 1999.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78(5).
- Wang Fei-Ling. 2005. "Beijing's Incentive Structure: The Pursuit of Preservation, Prosperity, and Power." Deng Yong & Fei-Ling Wang. *China Rising: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Wang Jisi. 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A Chinese Perspective." Robinson an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learendon Press.
- Zhao Quansheng. 1993. "Patterns and Choices of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20(1).

---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Responsible Power” in China

---

**LEE, Dong-Ryul**

Associate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China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cultivating international status of a responsible power since the mid-1990s. This article examines the specific intention of being responsible power according to China's diplomatic identity. The aspiration of being responsible power is based on the realistic perception. Chinese political elite believe that unrestrained U.S. unipolar dominance is an obstacle to China's being a responsible power. Therefore China has consistently advocated multipolarization as its official policy. Whereas China inevitably rely on the liberalistic methods to realize its great power goal. China actively participate and even initiate multilateralism, try to contribute to global governance and align its interest closer to the U.S. and other great powers. Although the content of responsibility remains somewhat contested, I anticipate that China's realistic aspirations will be restrain and even change gradually by its inevitable liberalistic approaches.

**Key Words :** responsible power, multipolarization, multilateralism,  
chinese foreign policy